

# 해방공간에서의 문학과 정치

## - 「도정」과 「새벽」을 중심으로 -

진연\* · 이해영\*\*

### 〈차 례〉

1. 머리말
2. 해방공간에서 좌익문단에 대한 남로당의 절대적 우위
3. 자기비판 및 당의 건설 요구에 부합되는 「도정」
4. 참혹한 현실 및 투쟁 요구에 어긋나는 「새벽」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비슷한 주인공과 주제를 다룬 지하련의 「도정」(1946.07)과 전홍준의 「새벽」(1948.04)을 중심으로 해방공간에서의 정치이념과 문학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두 편의 소설은 모두 그 나름의 문학성을 인정받아 해방공간에서 문단의 최고 위상을 자랑하던 조선문학가동맹의 기관지 『문학』에 게재되었지만 발표 당시 시뭏 다른 운명에 처하고 있었다. 지하련의 「도정」은 발표 당시에 좌익문단으로부터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았으나 전홍준의 「새벽」은 당시의 좌익문단으로부터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그나마 극소수의 평론도 주로 비판 일색이었다.

정치 논리가 우위인 해방공간에서 문학작품들의 운명 역시 정치와 직결되어 있었다. 소설을 게재한 『문학』을 비롯하여 작품 「새벽」에 관한 비평을 게재한 잡지들은 모두 좌익문단의 강력한 영향과 자장 속에 있었으며 당시 좌익문단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남로당의 정치이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도정」은 당시 남로당의 정치이념에 상당히 부합되는 작품이다. 반면 「새벽」은 남조선노동당의 정치적 이념과 투쟁목표를 적시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표 당시 좌익문단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당한 것이다. 이처럼 「도정」과 「새벽」은 정치의 시대 즉 해방공간이라는 이념 우위의 시대에 문학작

\* 제1저자,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언어문학과 석사

\*\* 교신저자, 중국해양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품의 운명이 정치에 의해 좌우된 대표적인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지하련, 전홍준, 「도정」, 「새벽」, 남조선노동당, 해방공간 문학, 정치와 문학

## 1. 머리말

이 글은 지하련의 「도정」과 전홍준의 「새벽」을 중심으로 해방공간의 정치 이념과 문학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sup>1)</sup> 「도정」은 지하련이 1946년 7월, 조선문학가동맹의 기관지인 『문학』 창간호에 발표한 소설로서 발표 당시 좌익 문단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당시 「도정」은 조선문학가동맹이 주관하는 ‘제1회 해방기념조선문학상’의 소설 분야 최종수상작 후보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지하련의 「도정」이 당시 좌익 문단의 확실한 인정을 받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소설은 전향지식인의 발본적인 자기 성찰을 보여주었다. 알다시피, “8.15 직후 국내에서 발흥한 민주주의운동에 있어서의 양심의 문제를 취급한 거의 유일한 작품”<sup>2)</sup>으로서 이 소설이 발표된 후 주목을 많이 받은 점은 바로 지식인의 날카로운 자기비판의 주제이다. 주인공 석재는 일제 강점기에 공산당원으로 활약하다가 6년의 징역을 살고 최종 신념을 포기하였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자기의 나약함과 비겁함에 시달리던 석재는 해방 후 자신의 나약성과 소시민성에 대한 철저하고 냉철한 자기비판을 통해 다시 입당했고 결국 자신의 소시민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장에 들어가 노동자로 새출발할 것을 다짐하며 영등포로 향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지식인에 대한 비판과 자기비판 및 노동계급에 대한 믿음은 1948년 4월

1) 특별히 설명해 둘 것은 필자가 이 글을 기획하게 된 계기는 해방공간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에서 유사한 주제를 다룬 두 편의 작품이 처했던 서로 다른 운명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문학작품을 그 창작 당시의 시공간과 사회적 배경, 수용 맥락 속에서 살펴보았다. 그때로부터 근 반세기 이상이 흘러간 오늘날의 시각에서 해방공간 당시의 작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본고의 논의에서 벗어나는 문제이므로 후속 연구로 남겨둔다.

2) 「1946년도 문학상심사경과 급 결정이유」, 『문학』 3호, 1947.4, 56쪽.

『문학』 7호에 발표된 신인 작가인 전홍준의 『새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해방 직후 새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만주에서 돌아온 지식인 현호는 가장 진보적인 출판사라고 하는 조선문화사에 입사했다. 그러나 주간 배준씨와 편집국장 M씨 등은 가짜민주주의자였다. 이들은 진정한 민주건설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집국 직원들의 봉급 승급액을 깎아 자신들의 월급에 보탤다. 자기와 동료들의 정당한 권익을 위해 현호는 동료들과 파업으로 반항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편집국 직원들의 파업이 바야흐로 실패로 돌아가려는 막바지에 인쇄공장 노동자들의 아낌없는 협력으로 부분적 승리를 획득할 수 있었다. 이 소설은 주간과 편집국장을 비롯한 가짜 민주주의적 지식인의 허위와 타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함과 동시에 양심적이고 정직하지만 불합리한 현실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전혀 갖지 못한 현호와 같은 소시민적 지식인들의 나약함과 무기력에 대해 심각한 자기비판을 진행하였으며 노동자의 절대적이고 강력한 힘을 고도로 칭찬하였다.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위의 두 소설이 적지 않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주인공의 설정이 비슷하다. 지하련의 『도정』과 전홍준의 『새벽』의 주인공은 모두 노동자의 길을 밟으려고 하는 소시민 출신의 지식인이다. 작품에서 이들 주인공 석재와 현호는 지식인의 소시민성을 솔직히 인정하고 지식인의 허위에 대해 통렬히 비판하였다. 『도정』의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 석재는 자기의 소시민성과 싸우기 위해 영등포에 가서 노동계급의 일원이 되고자 결심하였고 『새벽』의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 현호는 “자기는 앞으로 그들(노동자들)과 좀더 가까이 하리라……”<sup>3)</sup>라고 결심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것을 구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주인공을 기반으로 한 두 소설의 주제는 식민지에서 해방된 민족국가의 민중이 나아가야 했던 낙관적 변혁과 전망으로 총괄할 수 있다. 김희민은 『해방 3년의 소설문학』에서 전홍준과 지하련을 신진 작가로 분류했고 『도정』과 『새벽』이 이상의 공통점을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해방 3년에 있어서 중견 작가와 신

3) 전홍준, 『새벽』, 『해방 3년의 소설문학』(김희민 편), 세계, 1987, 361쪽.

진 작가의 구별은 다른 어느 시기에 있어서의 중견과 신진 사이의 그것과도 그 질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sup>4)</sup>라고도 지적했다. 또한, 두 작품은 모두 진보적 리얼리즘에 의해 이루어진 소설적 실천으로 볼 수 있다. '투쟁'과 '실천'은 두 작품 주제의 공통적 키워드이다.

그러나 「도정」의 발표로부터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창작된 전홍준의 「새벽」은 당시의 좌익문단으로부터 별로 이렇다할 주목을 받지 못하였고 그나마 극소수의 평론도 주로 비판 일색이었다. 「새벽」이 발표된 후 얼마 안 되어, 1948년 10월에 김무산은 「자기정리기의 창조사업-최근의 창작계에 대한 단편적 비평」에서 「새벽」에 대해 “현실은 왜곡되고 투쟁의 곤란성과 복잡성이 무시되고, 통털어 싸우는 노동계급의 현실이 모독”<sup>5)</sup>되었다는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비평은 1941년 4월 게재되었다가 1948년 10월에 속간된 잡지 『문장』에 게재되었다. 속간된 「문장」은 조선문학가동맹 기관지인 『문학』의 연장선 상에 있었는데 “좌익계 기관지”였던 『문학』이 존속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다소 온건한 이미지’를 가진 『문장』이 대체하였<sup>6)</sup>던 것이다. 훗날 『문장』의 경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 시기의 『문장』이 좌익문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1949년 7월, 김병규는 「신인론」<sup>7)</sup>에서 전홍준의 「새벽」에 대해 “작가의 체취로 보아서는 가장 신인인듯하면서 작품구성의 맵씨는 오히려 기성작가보다 더 케케 묵은 느낌을 준다”라고 혹평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홍준은 “가장 신인다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습성의 잔재가 끼어”있는 작가였다. 김병규의 이 비평을 게재한 잡지 『신천지』는 해방 후 잡지 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려고 노력하였으나 당시 좌익문단의 강한 세력의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에 1949년 이후 우익은 『신천지』를 좌익 잡지로

4) 『해방 3년의 小說文學』(김희민 편), 세계, 1987, 453쪽.

5) 김무산, 「자기정리기의 창조사업-최근의 창작계에 대한 단편적 비평」, 『문장』 속간호, 3권 3호, 1948.10, 216쪽.

6) 김윤식, 「가톨리시즘과 미의식-정지용의 경우」, 『한국근대문학사상사』, 한길사, 1984, 195~196쪽; 허윤, 「속간호 『문장』과 정지용」, 『구보학보』 21, 구보학회, 2019, 78쪽에서 재인용.

7) 김병규, 「신인론」, 『신천지』 4권 6호, 1949.7, 144쪽.

규정하였다.<sup>8)</sup> 이처럼 작품이 발표된 후, 극히 희소하게 진행되었던 비평과 그 비평의 내용 및 그것이 게재된 위의 두 잡지의 상황 등으로부터 미루어볼 때, 전홍준의 『새벽』은 좌익문단으로부터 혹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불과 2년을 사이 두고 비슷한 주인공과 주제를 다루는 위의 두 작품에 대한 평가는 이렇듯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도정』과 『새벽』은 해방공간이라는 특수시기에 문학분야 정(성공)·반(실패)<sup>9)</sup>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점에 착안한 연구는 없으며 이 두 작품에 대한 연구는 극히 소략하게 이루어졌다. 최근까지의 『도정』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 주된 연구 성과는 소설의 서술화법이나 전향지식인의 감정구조 혹은 이미지 분석 등 면<sup>10)</sup>에 착안하였다. 해방기 신진작가인 전홍준은 지하련에 비해 더욱 문단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는데 관련된 연구성과로는 『해방기 전홍준의 소설 일고』,<sup>11)</sup> 『전홍준 소설의 현실인식 연구』<sup>12)</sup> 등이 있다. 전홍준의 대표작인 『새벽』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작가의 현실인식과 관련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 글은 비슷한 주인공과 주제를 다루고 있는 『도정』과 『새벽』이 당시에 사뭇 다른 평가를 받은 이유에 주목하였다. 두 작품이 게재된 『문학』이 조선문학가동맹의 기관지였고 전홍준의 소설을 비판한 평론을 게재한 좌익 경향의 잡지 『문장』과 『신천지』 역시 남로당<sup>13)</sup>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있었음을

8) 신정은, 「잡지 『신천지』의 해방기 문학적 특성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22, 국제한인문화회, 2018, 88쪽.

9) 특별히 설명해 둘 것은 필자는 성공이나 실패로 문학작품을 간단하게 평론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본다. 여기에 나타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그저 작품이 발표된 후 당시 문단의 인정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를 가리킬 뿐이다.

10) 『도정』에 관한 연구 성과는 이양숙, 『해방 직후 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의 감정구조-지하련의 <도정>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4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4; 염인수, 「지하련 소설의 서술화법 연구-〈결별〉, 〈제향초〉, 〈도정〉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7, 우리어문화회, 2017; 서재원, 「지하련 소설의 전개양상-인물의 윤리 의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4, 국제어문화회, 2008; 박지영, 「혁명을 바라보는 여성작가의 시선-지하련의 <도정〉, 한무숙의 <허물어진 환상〉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0, 반교어문화회, 2011; 권성우, 『해방 직후 진보적 지식인 소설의 두 가지 양상-〈해방전후〉와 <도정〉을 중심으로』, 『우리문학연구』 40, 우리문학회, 2013. 등이 있다.

11) 전홍남, 『해방기 전홍준의 소설 일고』, 『현대문학이론연구』 7, 현대문학이론학회, 1997.

12) 장노현, 「전홍준 소설의 현실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22,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13) 조선공산당은 1925년 4월에 조직된 사회주의운동 단체로 1928년 12월에 해소되었다. 해방 이후 재건된 조선공산당은 1946년 11월 남조선노동당으로 개편되었다가 1949년 6월에는 북조선노동당

고려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당시 남조선노동당의 정치이념과 결합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비꾸어 말하자면, 이 글은 『도정』과 『새벽』을 중심으로 해방공간의 정치이념과 문학의 관련성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에 해방공간에서 좌익문단에 대한 남로당의 절대적인 우위에 대해 그들이 조선문학가동맹과 그의 기관지인 『문학』을 중심으로 벌인 여러 가지 활동, 예를 들면 ‘창작합평회’, ‘소설가간담회’ 등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해방공간에서 좌익문단에 대한 남로당의 절대적 우위

해방공간은 조선반도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된 민족국가의 건설로 나아가던 시기였다. 해방 후 조선반도의 정치세력은 양대 세력으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산주의 세력이요,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 세력이다. 양대 세력은 해방공간에서 모두 자기의 문학세력을 결성하고 문단에 대해 우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다. 특히 좌익문단에 대한 남조선노동당의 장악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래에 남로당의 해방 후 좌익문단에 대한 절대적 우위, 즉 남로당이 어떻게 문단에 개입했고 지도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남로당은 통일전선을 결성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건립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1945년 9월 20일에 남로당 당수인 박헌영은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 즉 ‘8월 테제’를 발표했으며 향후의 정치적인 노선을 제기하였다.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에서 당면임무 7개를 제기했는데 다섯 번째는 문화단체와 관련된 요구였다.

문화단체: 문화연맹 과학자동맹 무신론자동맹 작가동맹 스포츠단 등 각종 문화

과 합당하여 조선노동당으로 변했다. -『남로당연구자료집』(김남식 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10, 서문 참조.

본고에서는 해방 후 박헌영을 영수로 재건된 조선공산당-남조선노동당을 통칭하여 ‘남로당’이나 ‘남조선노동당’으로 명기하고자 한다.

단체가 결성되어 당의 지도하에서 활동하여야 하며 당을 지지하고 협력하고 보조 단체로서 활동하지 않으면 안된다.<sup>14)</sup>

남로당은 '8월 테제'에서 문단이 당의 지도하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요구를 위에서처럼 명확하게 밝혔다. 당시 좌익문학단체들은 남로당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추종하고 있었으므로 남로당의 '8월 테제' 즉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는 당시의 좌익문단에서 문화운동의 최고지침서가 되었다. 이 시기에 좌익문단에 대한 남로당의 절대적 우위는 우선 남조선노동당이 해방공간의 좌익문학운동 단체의 결성과 발전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주도적 역할을 발휘했는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조선문학가동맹은 하루아침에 결성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임화 중심의 조선문학건설중앙협의회(1945.8.18 결성)로 출발하였다가 구카프계열의 반발로 인해 한설야 중심의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1945.9.30 결성)으로 분화되었다. 이 두 단체는 비록 문학운동노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으나 모두 남로당의 지도하에 문학운동을 전개하였으므로 다시 남조선노동당의 조율하에 조선문학가동맹으로 통합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이합집산의 과정에서 좌익문단에 대한 남조선노동당의 절대적인 우위와 장악을 엿볼 수 있다.

이후 조선문학가동맹은 해방공간에서 남조선노동당의 외곽조직으로 당의 지도하에 문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문학가동맹의 서기장은 김남천이었고 기관지는 바로 「도정」과 「새벽」이 게재된 『문학』(1946.07~1948.07)이다. 좌익문학단체의 이러한 변천을 통해 정치 논리가 우위인 시대에 문화단체는 정치세력을 협력하는 보조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남로당의 좌익문단에 대한 절대적 우위는 또한 해방 이후의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창작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14) 김남식 편, 앞의 책, 16~17쪽.

두루 이는 바와 같이 해방공간에서 아서원좌담회(1945.12.12)와 봉황각좌담회(1945.12, 그믐계)는 아주 중요한 문학사적 사건이었다. 아서원좌담회의 주제는 ‘조선문학의 지향’이었고 봉황각좌담회의 주제는 ‘문학자의 자기비판’이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아서원좌담회의 사회자는 프로예맹의 핵심인물인 이기영이었고 봉황각좌담회의 사회자는 훗날 문학가동맹의 서기장으로 된 김남천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좌담회의 사회자가 곧 “이데올로기의 대변자”<sup>15)</sup>였기 때문에 위의 두 좌담회는 모두 좌익이 주도하여 벌인 좌담회라고 볼 수 있다.

좌담회 외에 창작합평회의 개최도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취산장 창작합평회(1946.4.20)는 해방 이후의 조선 소설계를 총정리한 첫 번째 합평회였다. 이 합평회에서 논의된 작품들로는 「균열」(김학철), 「쌀」(안희남), 「잔등」(허준) 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김남천 등 좌익문인들은 자기의 문학관으로 작품을 평가하였다. 여기서 특별히 유의할 만한 것은 허준의 「잔등」에 대한 김남천의 평가였다. 김남천은 이 작품이 “너무도 감격이 없고 또 자기변혁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sup>16)</sup>고 혹평하였으며 허준에 대해서는 “과연 씨는 이 위대한 변혁기를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sup>17)</sup>고 강한 의구심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김남천이 해방공간을 “위대한 변혁기”라고 스스로없이 불렀던 사실은 김남천이 이 시기에 이미 작품세계를 떠나 정치적 감각으로 작품을 평가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조선문학가동맹 소설부에서 간담회가 수시로 열려 작품비평이 이루어졌고 지하련이 참석한 적도 있었다.<sup>18)</sup> 이러한 간담회에서 “곧 창작이 당의 지도이념이랄까 어떤 역사의 방향성에 연결될 수 있는가를, 토론을 통해 문 제삼았던 것이다.”<sup>19)</sup> 이는 『문학』에 실린 작품의 검열수준을 간접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간담회에서 조선의용군의 상이군인 출신 김

15)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 출판부, 1989, 143쪽.

16) 위의 책, 179쪽.

17) 위의 책, 179쪽.

18) 『소설가간담회』, 『동아일보』, 1946년 4월 3일, 2쪽.

19) 김윤식, 앞의 책, 158쪽.

학철의 『균열』을 토론한 적이 있었고 김학철도 역시 훗날 이 간담회에 대해 “진보적인 작가들의 조직인 문학가동맹의 기관지 『문학』편집부에서 한번은 무슨 좌담회를 개최하였는데 나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sup>20)</sup>

좌익계열은 이렇듯 좌담회·창작합평회·간담회 등 방식을 통해 해방 후 문단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조선문학가동맹을 중심으로 좌익계열은 각종 매체를 장악함으로써 문단의 주도권을 장악했다. 『문학』(조선문학가동맹 기관지), 『아동문학』(조선문학가동맹 아동문학위원회 기관지), 『우리문학』(조선문학가동맹 서울시지부 기관지) 등 좌익 문화단체의 기관지를 제외하고, 『해방일보』, 『독립신보』, 『중외신보』 등 좌익일간지, 『서울신문』, 『경향신문』, 『신천지』 등 중도적 일간지와 잡지를 포함하여 대부분 잡지매체는 좌익 문학노선의 영향을 받았다.<sup>21)</sup> 좌익 문단의 세력은 해방공간의 조선문단에서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우익계열 문인들의 회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연현은 『해방문단 5년의 회고(2)』에서 “(해방 후) 언론기관의 90%가 인공의 대변지였고, 문학적 표현기관의 90% 이상이 문맹계에서 장악 지휘하는 상황에서 전조선문필가협회와 청년문학가협회 작가들은 모든 문단기관으로부터 배제되었으며 작품의 모든 판로가 보이콧을 당했다”<sup>22)</sup>고 회고했고 김동리도 “월간물의 95%가 좌익을 위해서만 동원되었으며, 대부분의 저널리스트와 출판업자들이 좌익의 명령에만 복종한다”<sup>23)</sup> 통탄하였다. 이야말로 해방 후 좌익문단의 절대적인 우위를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좌익계열은 직접적으로 문인을 지도하여 당의 의지에 따라 소설창작을 진행하게 하기도 했다. 10월 인민항쟁 이후 좌파의 세력은 크게 약화 되었는데 남로당은 더욱 적극적으로 인민항쟁을 선전하였으며 인민항

20) 『김학철작품집』, 연변인문출판사, 1987, 270쪽; 김윤식, 앞의 책, 158쪽에서 재인용.

21) 이봉범, 『잡지 『신천지』의 매체 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3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203쪽.

22) 조연현, 『해방문단 5년의 회고(二)』, 『신천지』, 1949.10; 앞의 글, 204쪽에서 재인용.

23) 김동리, 『문학운동의 2대 방향』, 『대조』, 1947.5; 이봉범, 앞의 글, 204쪽에서 재인용.

쟁을 작품화하는 것은 좌익 문인의 최대의 과제이자 최우선의 과제가 되었다. 1946년 12월 28일에 조선문학가동맹 주최 전재동포구제 문예강연회가 개최되었고 당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조선문학가동맹은 김남천의 주도 하에 3·1운동 특집호(1947.2, 임시호)를 내었다. 이 임시증간호에서 좌익문단 계열의 또 하나의 핵심인물인 임화는 「인민항쟁과 문학운동」이라는 글을 발표했고 “인민항쟁은 오늘의 3·1운동이요, 그것은 새로운 민족문학운동의 출발점”<sup>24)</sup>이라는 명제를 제기했다.

이 특집호는 16편의 소설을 모으고 그중 소설 5편을 골라서 실었는데 각각은 「방아쇠」(전명선), 「연락원」(강형구), 「산풍」(김현구), 「어머니」(박찬모), 「아버지」(황순원)이었다. 이상 5편 소설은 조선문학가동맹, 혹은 당의 호소에 따라 10월 인민항쟁을 작품화한 예로 볼 수 있다. 특히 황순원의 「아버지」는 임화와 김남천의 “권두논문의 문학적 응답”<sup>25)</sup>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교묘하게 3·1운동과 10월 인민항쟁을 연결시켰다.

물론 1946년 9월 이후 남조선노동당이 미군정의 강한 탄압을 당하게 되고 조선문학가동맹의 주요구성원들이 대부분 월북해 버림으로 하여 점차 그 영향력이 좁아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노동당은 여전히 좌익 문단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

### 3. 자기비판 및 당의 건설 요구에 부합되는 「도정」

지하련의 「도정」은 발표된 후 당시 좌익문단으로부터 많은 주목과 관심을 받았다. 그런데 남조선노동당의 자료와 결합하여 살펴보면 「도정」에 나타난 자기비판과 당의 건설 주제는 당시 남로당의 정치이념과 놀랍게 일치하다.

우선 자기비판의 주제이다. 「도정」은 해방 초기에 당시 사회적 핵심 화두였던 지식인의 자기비판과 반성의 문제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기에 성공한

24) 김윤식, 앞의 책, 194쪽.

25) 위의 책, 201쪽.

작품이다. 해방 후 한 달 뒤인 1945년 9월 20일에 발표한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에서 남로당은 식민지사회에서 많은 지식인들이 나약함 때문에 신념을 포기하고 전향자가 되었던 사회현실을 지적하였다.

과거의 파벌분자와 그 거두들이 전시하에 있어서 일본제국주의의 군사적 탄압을 두려워서 계급운동을 청산한 변절자일파(전향파)가 다량적으로 산출된 것이었다.<sup>26)</sup>

이러한 사회현실에 착안하여 작가는 석재라는 전형적인 전향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삼아 소설을 창작하였다. 『1946년도 문학상심사경과 급 결정이유』에서 심사위원들은 「도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8.15직후 국내에서 발흥한 민주주의운동에 있어서의 양심의 문제를 취흡한 거위 유일한 작품으로서 새로운 조선문학이 창조하여 나갈 인간의 형상의 한 경지를 개척하고 있으며 심리묘사 급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 표시된 작가의 비범한 자질과 더부러 우리들 가운데 있는 소시민성의 음영을 감지하는 예민한 감각은 주목에 값하는것이다.<sup>27)</sup>

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도정」이 해방 초기에 좌익문단으로부터 큰 주목과 함께 그 의의를 인정 받은 이유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바로 전향지식인으로서 철저하게 전향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 점이 당시 남로당이 명확하게 지적한 자기비판의 시대 주제에 확실하게 부합되었기 때문이다. 동시대의 소설과 달리 「도정」은 “시종일관 철저하고 발본적인 자기 성찰”<sup>28)</sup>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당시 「도정」과 함께 해방문학상 후보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해방문학상을 수상한 이태준의 「해방전후」는 대체로 주인공 현의

26) 김남식 편, 앞의 책, 11쪽.

27) 『1946년도 문학상심사경과 급 결정이유』, 『문학』 3호, 1947.4, 56쪽.

28) 권성우, 「해방직후 진보적 지식인 소설의 두 가지 양상」, 『우리문학연구』 40, 우리문학회, 2013, 299쪽.

“일제에 대한 협력과 소극적 저항을 자기 합리화하고 있음”<sup>29)</sup>을 볼 수 있다. 반면 『도정』의 주인공 석재는 자기의 나약함으로 인해 공산당원의 신분을 포기한 후, 6년 동안 늘 커다란 자책감에 시달려왔으며 심각한 자기비판을 하였다. 『도정』의 시작 부분에서 석재는 술에 취한 후 이러한 말을 하였다.

……난 너무 오랜동안을 나만을 위해 살아왔어. 숨어다니고 감옥엘 가고 그것 다 똑바로 말하면 날 위해서였거든……이십대엔 스스로 절 어떤 비범한 특수인간으로 설정하고 싶어서였고, 삼십대에 와서는 모든 신망을 한몸에 모은 가장 양심적인 인간으로 자처하고 싶어서였고……그러다가 그만 이젠 제구멍에 빠져 헤어날 못하는 시늬이거든.<sup>30)</sup>

석재는 스스로를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자책하고 비판하였다. 현실에 대응하는 용기를 상실하고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 때문에 신념을 포기하고 전향자가 되었다는 것은 석재에게는 큰 오점을 의미했다. 자신의 지나온 각 시기에서의 목표를 돌이켜 보는 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날카로운 반성과 성찰이다. 전향자들의 자기비판은 해방 직후의 사회 주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남포당이 내세운 이러한 자기비판은 오직 전향자들을 비판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라 전향자들로 하여금 식민지 시대에 자기의 전향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여 새 모습으로 민주국가의 건설에 투신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45년 11월, 『조직문제에 대한 결정서』에서 이러한 요구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었다.

우리는 반드시 혁명의 선진계급 노동자, 또 그와 필연적 동맹자인 광대한 농민 대중을 기초로 당을 건설하며 이에 무한 충실한 혁명적 지식계급분자들을 광범하게 당으로 흡수하며 조직하여야 될 것이다.<sup>31)</sup>

29) 위의 논문, 299쪽.

30) 지하련, 『도정』, 『해방 3년의 小說文學』(김희민 편), 세계, 1987, 364쪽.

31) 김남식 편, 앞의 책, 30쪽.

해방 초기에 남로당의 방침은 조직을 확대하고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역량을 흡수하는 것이었다. 『도정』은 바로 양심이 있는 전향자였던 지식인이 자기비판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모습으로 민주국가 건설에 투신하게 되는 가능성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 주인공 석재는 일제의 강압으로 자기의 신념을 포기한 전형적인 전향지식인으로 전향 이후, 6년 동안 자기의 나약함과 비겁함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아무런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소극적인 생활 태도로 살아왔다. 이러한 인물이 해방 이후 생활의 희망을 다시 얻었고 최종적으로 영등포에 가서 자기의 소시민성과 싸우려고 결심하며 새로운 자아로 성장할 것을 결심하였다. 주인공 석재는 바로 남조선노동당이 손을 잡고 함께 일을 하고 싶은 그런 혁명적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도정』의 창작 목적은 남로당의 정치적 이념을 막바로 수용하고 있다.

ㄱ. ……(전략) 안으로 그 암실(暗室)에 트집을 잡는 것이었기에, 그에 문제는 「인간성」에 가 부딪고 미는 것이었다. 결국-네가 나쁜 사람이라-는, 애매한 자책 아래 서게 되면, 그것이 형태도 죄목도 분명치 않은, 일종의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한층 그로선 용납할 도리가 없었다.

ㄴ. 아침에 잠을 깨니, 어느때와 달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건 「공산당」(共産黨)의 소문이었다. (중략)

「나는 타락한 것이 아닌가?」하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이었다.

ㄷ. 외로웠다.

사지를 쭉-뻗어 땅을 안고, 잔디를 한웅큼 쥐어보니, 가슴이 메이는듯 눈물이 쭉 나온다.

「나는 아직 젊다……나는 아직 젊다!」

ㄹ. 「나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小市民’과 싸우자! 싸움이 끝나는 날 나는 죽고,

나는 다시 탄생할 것이다. …… 나는 지금 영등포로 간다. 그렇다! 나의 묘지가 이곳이라면 나의 고향도 이곳이 될 것이다……」<sup>32)</sup>

위의 내용은 주인공 석재의 각 시기마다의 심리 상태를 제시하며 해방 이후 전형적인 전향자가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해방 이전 석재가 전향 때문에 늘 ‘애매한 자책 아래’ 살게 된 심리 상태를 묘사하였다. 전술했듯이 석재는 늘 자기의 비겁함과 나약함 때문에 큰 고통을 받았다. 그는 석재가 일본 패망의 소식을 들은 후의 상태 묘사이다. 해방 후 석재는 막연하고 병이 나듯이 답답하였다. 자기의 나약함 때문에 당적을 포기하였는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민주국가 건설에 투신해야 할까? 이처럼 남로당에 대한 석재의 감정은 매우 복잡하다. 석재에게 공산당은 “칠같이 어두운 밤에서도 환-히 밝은 단 하나의 옳은 것”<sup>33)</sup>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당 때문에 6년 징역을 지냈고 결국 신념을 저버리고 현실과 타협함으로써 그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타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해본다. 그에게 당에 대한 신념은 애매한 윤리적인 가책과 더불어 오랫동안 그 자신에게 커다란 고민이었던 것이었다.

그는 석재가 기철이 이제 당의 최고 간부로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된 후의 상태 묘사이다. 기철과 같은 기회주의자가 당의 최고 간부로 된다는 사실은 석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석재의 눈에는 기철이가 겉으로만 충실하고 실제로 진정한 양심이라고는 전혀 없는 비양심적 인간인데 이러한 인간이 당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면 당은 조만간 희망이 없는 부패한 조직으로 전락될 것이다. 이는 손을 잡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무가 없음을 의미했다. 그래서 석재는 외로웠다. 그렇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자기가 아직 젊다고 외쳤다. 아직 젊다는 것은 혁명의 용기와 열정을 아직 그대로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는 당에 다시 가입한 후 주인공 석재가 용기를 내어 자기의 소시민성을 통렬히 비판하고 영등포에 가서 노동자의 길을 밟음으로써 새롭

32) 지하련, 앞의 책, 그는 365~366쪽, 나는 369쪽, 그는 373쪽, 나는 378쪽.

33) 지하련, 앞의 책, 372쪽.

게 탄생하고자 하는 심리에 대한 묘사이다. 그리고 석재는 드디어 자기비판을 완성하였으며 자신의 소시민성을 극복하기 위해 공장에 들어가 노동자로 새출발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상을 통해서 주인공 석재는 바로 남로당이 흡수하고 싶은 양심적이고 동시에 당에 대해 잠깐 실망과 회의를 해도 최종 당을 믿고 선택하는 그러한 충실하고 혁명적인 지식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의 고민과 새출발을 통해 전형적인 전향자가 해방 직후 자기비판을 완성하고 새 모습으로 국가건설에 투신하는 과정도 볼 수 있다. 『도정』은 이러한 가능성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데 성공하였고 그러므로 유력한 정치이념의 홍보 도구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당의 건설이라는 주제이다. 소설에서는 우선 석재의 목소리를 빌려 기철과 같은 기회주의자들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러한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석재의 태도는 실상 가짜공산주의자가 당에 혼입하는 데에 대한 경계성을 갖춰야 한다는 남로당의 주장과 일치한다. 1945년 11월, 『조직문제에 대한 결정서』에서 이 문제를 명시적으로 지적한 바 있었다.

당을 문을 연다고 해서 결코 간세들이 혼입하는 데 대한 경계성이 없으면 안된다. 간교한 일본제국주의지는 수천백의 주구분자들을 공산주의자들의 모자를 씌워서 우리의 당에 혼입시켜 당을 파괴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대담하게 당을 발전시키되 간세분자와 투기분자들이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당내에 섞여 들어올 가능성을 주의하며 시시각각으로 경계하여야 된다.<sup>34)</sup>

소설에서 석재가 긍정적인 인물이라면 석재의 눈에 비친 기철은 말그대로 부정적인 인물이다. 기철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로 혼란한 시기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전향한 인물이다. 소설에서 기철이 해방 직후, 자신의 전향과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한 통렬한 자기비판이 없이 막바로 당의 사업에 뛰어들어

34) 김남식 편, 앞의 책, 30쪽.

핵심적 역할과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늘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당의 사업에 적극 나서지 못하는 석재와 현저한 대비를 이루었다.

작품에서 기철과 관련된 직접적인 묘사는 거의 없고 주로 석재의 시각에서 포착된 모습이 대부분이다. 석재의 눈에서 기철은 “돈이 제일일 땐 돈을 모으려 정열을 쏟고, 권력이 제일일 땐 권력을 잡으려 수단을 가리지 않을 사람이다”.<sup>35)</sup> 앞부분에서 등장한 기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향하였고 자책감에 시달리는 석재를 결벽증에 걸렸다고 매도하였기 때문에 석재는 기철에게 매우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석재에게 기철은 전형적인 가짜공산주의자인데 이러한 사람이 해방 후 얼마 안 되어 당의 최고 간부로 되고 말았다. 이러한 가짜공산주의자가 당에 혼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석재는 커다란 고민과 불만에 빠졌다. 석재와 같은 양심 있는 혁명적 지식인들이 기회주의자였던 기철과 같은 사람이 당에 혼입하는 것에 대해 환멸의 감정에 휩싸이게 하는 설정을 통해서 가짜공산주의자가 당에 혼입하는 것에 대해 경계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볼 수 있다.

석재의 당에 대한 태도 역시 주목을 요하는 대목이다. 석재는 “힘이 모자라 잘못을 범할때 범하더라도 우선 일을 해야지”<sup>36)</sup>라고 자기를 위안하고 있는데 그가 혼자 있을 때 ‘공산당’이 석재의 눈에는 무서운 ‘괴물’이 되었다. 그런데 그 괴물은 괴물이라기보다는 석재 자신의 삶 내내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숙명적인 존재”<sup>37)</sup>로 볼 수 있다. 즉 석재에게 “공산당은 결코 탈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거니와, 이는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사회주의 조직에 관여했음”<sup>38)</sup>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긴 시간을 석재는 자기의 나약함과 비겁함 때문에 당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움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기철이라는 사람이 당의 축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석재에게 당은 괴물로 비유되지만, 동시에 “어두운 밤에서도 환-히 밝은 단 하나의 『옳은 것』을 지니고 있다”.<sup>39)</sup> 석재가 당에 대해 환멸의 감정에 휩싸이

35) 지하련, 앞의 책, 372쪽.

36) 위의 책, 371쪽.

37) 권성우, 앞의 논문, 315쪽.

38) 위의 논문, 315쪽.

면서도 끝끝내 당을 떠나지 않고 다시 입당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과 기철에 대한 석재의 복잡한 마음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어떻게 된 「당」이든 당은 당인거다. 그는 일찌기 이 당의 이름 아래, 충성되기를 맹세하였던 것이고…… 또 「당」이 어리면, 힘을 다하여 키워야 하고, 가사 당이 잘못을 범할 때라도, 당과 함께 싸우다 죽을지언정, 당을 버리진 못하는 것이라 알고 있다. 이러하기에, 이것을 꼬집어 이제 그래서 「당」을 비난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었다. 잠깐 그대로 앉아 있노라니 별안간, 기철이란 「인간」에 대한 어떤 불신과 염증이 훑-끼쳐 온다.<sup>40)</sup>

위에 보여주듯이, 석재는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즉 “한 개인에 대한 판단과 당에 대한 입장은 구분되어야 한다”<sup>41)</sup>는 것이었다. 석재는 당의 최고 간부인 기철에 대해 불신하고 증오해도 당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개인의 감정과 공적인 대의 사이의 갈등 앞에서 석재는 조직의 편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석재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자로 새출발하고자 함을 암시하기도 한다.

동시에 기철의 태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석재와 만난 후, 기철은 진지하게 석재에게 재입당을 청구하였다. 기철의 “자네 같은 사람이 이렇거면 당이 누구와 손을 잡고 일을 한단 말인가”<sup>42)</sup>라는 말이 석재의 심금을 울렸다. 기철의 태도는 석재가 다시 입당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석재에 대한 기철이의 이러한 진지한 태도와 재입당 청구는 당의 주요간부로서 당의 입장에서 석재와 같은 우수한 동지를 당에 흡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석재와 기철이 사이의 이러한 모순과 갈등 통합의 관계 설정은 당의 이익을 위해 내부의 단결을 주장하고 내부 분열을 반대해야 한다는 정치이념과

39) 지하련, 앞의 책, 372쪽.

40) 위의 책, 377쪽.

41) 권성우, 앞의 논문, 318쪽.

42) 지하련, 앞의 책, 377쪽.

매우 부합된다. 1945년 9월, 『당과 불체비키 규율』에서는 ‘통일된 당의 건설’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러므로 운동이 분립하여 있을 때에는 『통일된 당』의 건설이 유일무이한 초미의 급무였으나 통일된 후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유일한 지도밑에서 일사불란한 투쟁과 행동으로 과감하게 조선현실에 가로 놓인 모든 중요문제를 해결하느냐 함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sup>43)</sup>

위에서 보여주듯이 해방 초기부터 당의 통일은 남로당의 중요한 정치과제 중의 하나였다. 짧은 시간에 획득한 통일과 갑작스럽게 온 광복 때문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당 내부의 통일을 유지해야만 현실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1946년 1월 28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상무위원회가 『남조선 당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에서 비슷한 정신을 담고 있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었다.

무원칙한 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당원들의 정치 수준이 낮은 것을 기화로 해서 떠드는 분파장이들의 작란을 당내에 허락한다는 것은 우리 『토치카』안에 적병을 잠입시키는 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북조선전체당원을 대표하여 남조선당내에 아직도 계속 존재하고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무원칙한 『자살적』 분파행동을 반대한다.<sup>44)</sup>

위의 인용문이 보여주듯이 북조선공산당은 남조선노동당 내부에서 출현한 분파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남로당 내부에서 당의 통일을 위협하고 있는 분파문제는 이미 큰 문제가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글은 당 내부의 통일을 해치는 분파분자들을 당의 적으로 보았다. 실상 분파는 바로 개인의 이익이나 감정 때문에 공적인 이익을 해치는 것이었다. 여기의 키워드는

43) 김남식 편, 앞의 책, 22쪽.

44) 위의 책, 111쪽.

‘통일’이다.

전술했듯이 석재는 처음에 자기 개인의 감정 때문에 기철에게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석재의 생각에는 기철이와 같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는 당의 간부로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석재의 이 판단이 완전히 객관적이고 공적인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기철에 대한 석재의 사사로운 개인 감정이 끼어든 것으로서 다분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라는데 있었다. 소설에서 석재도 이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석재)는 얼굴이 후끈 달아움을 깨달았다. 조금전 기철이 최고간부라는 게 앙양하든 마음속엔 「그럼 내라도 될 수 있다」-는 엄폐된 자기 감정이 숨어 있지 않았던가?<sup>45)</sup>

이처럼 기철이 당의 최고간부로 된 사실에 대한 석재의 불만과 분노는 일정 부분 그의 질투심에서 유발된 것임을 석재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작가는 작품에서 자주 ‘석재의 눈에서는 기철이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석재가 기철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소설의 뒷부분에서 당 활동의 전면에 나선 기철은 기회주의적이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성의있게 석재에게 입당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는 자기가 전면에 나서서 주도적으로 당을 조직하게 된 이유부터 석재에게 설명하였는데 기철에 따르면 지하에나 해외에 있는 동무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직을 일단 결성해야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당을 조직할 자격이 있는 동무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실문제들이 산적해있기 때문에 당을 새롭게 조직하는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서는 문제라는 것이다. 일단 당의 조직이 있어야 일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기철이는 본 것이다. 이처럼 기철은 석재에게 자신이 전면에 나서서 당을 조직하게 된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

45) 지하련, 앞의 책, 372쪽.

한 후, 그에게 입당할 것을 요구하였다. 기철의 이러한 성근한 태도는 기철에 대한 석재의 기존의 태도와 관점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생각하면 그동안 부끄러운 세월을 보냈기는 제나 내나 매한가지였다. 가사 살인 도모를 하고, 야간도주를 한대도, 같이 하고 같이 죽을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철이 당의 중요인물일진대, 기철을 비난하는 것은 곧 당의 비난이 되는 것이었다.<sup>46)</sup>

기철에 대한 석재의 적의가 전에 비해 어느정도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현재는 당의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통일을 유지해야 하는 통합 지향의 시기이기 때문에 석재는 기철을 자기의 동무로 보고 기철의 당간부로서의 신분을 인정하였다. 또한 현재의 기철은 아무 원칙적인 잘못도 범하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석재는 과거의 기철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상당히 컸으나 최종적으로 기철의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인정하고 그의 권고에 따라 다시 입당하였다. 반면 기철은 자기에 대한 석재의 불만과 적의를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진지하게 석재에게 입당을 권고하였다. 두 사람 모두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당이라는 공적 입장에 서서 자신의 정치적 지향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은 남로당이 주장한 이념과 고도로 일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방 초기에 남로당은 조직을 확대하고 각종 역량을 흡수하는 동시에 당 내부의 안전과 통일을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었다. 여기서 남로당이 흡수한 각종 역량 중에는 철저한 자기비판을 통해 새로운 자아로 성장한 혁명적 지식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해방 후 재건된 남로당 내부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존재하여 당의 안전과 통일이야말로 당시 남로당의 큰 과제로 되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도정」의 성공은 필연적이다. 소설에서 전향하였던 혁명적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삼아 자기비판과 당의 건설 등 문제를 문학

46) 지하련, 앞의 책, 377쪽.

적으로 표현하는 데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 4. 참혹한 현실 및 투쟁 요구에 어긋나는 「새벽」

「새벽」은 해방기 신진 작가인 전홍준이 1948년 4월에 발표한 소설이다. 이 소설은 지식인의 허위와 무기력을 심각하게 비판하고 노동자의 힘을 고도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보면 「새벽」역시 이 시기의 정치이념에 상당히 부합되는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머리말에서 언급했듯이 이 소설은 발표 직후 좌익문단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고 「도정」과 사뭇 다른 운명에 처했던 것이다.

불과 2년을 사이 두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회현실과 좌익의 지도자였던 남로당의 투쟁 요구와 결합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좌익문단이 남로당의 절대적인 영향 하에 있었다고 할 때 문인들의 창작에 대한 비평이나 평가는 역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의 지도 사상 및 지도 이념과 갈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새벽」의 이야기는 단순하다. 주인공 현호는 해방 직후 새 민주주의국가 건설의 희망을 품고 만주에서 돌아온 후 소위 진보적인 출판사라고 하는 조선문화사에 입사했다. 초기에 그는 주간 배준씨와 편집국장 M씨를 아주 존경하였고 그들을 따라 민주건설에 투신할 것을 결정했는데 어느 날 그들이 가짜민주주의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간 배준씨와 편집국장 M씨는 민주건설에 유익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편집국 직원들의 봉급 승급액을 깎아 자신들의 월급에 보탬다. 현호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완전히 환멸에 빠졌다. 그는 이러한 사람 밑에서 직원 노릇 하는 것을 그만두고 사직하려고 하다가 친구 진석의 설득으로 자기의 소시민성을 극복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래서 현호는 주간과 편집국장에 불만을 품고 있는 다른 사원들과 함께 정당한 권익을 위해 동료들과 파업으로 반항을 했지만 그들의 반항은 아무 소용

이 없었다. 오히려 주간의 해고조치로 현호와 편집부의 다른 사원들 전부 출판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몰렸다. 현호들의 파업이 이틀째 되던 날 배준씨는 현호를 불러 내일부터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최후통첩을 내렸다. 사태의 이러한 악화에 대해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현호는 잠깐 후회하기도 했으나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 끝까지 버티어 보기로 결심하였다. 이러한 위기의 시각에 공장 전평분회책임자 김이라는 청년이 현호를 찾아와서 도움을 주었는데 김청년은 현호에게 파업에 관해서 질문을 한 후 이튿날 열두 시부터 현호 등을 협조하기 위하여 인쇄부공장 노동자 파업을 조직하였다. 현호의 감사에 대해 김청년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동무들의 당연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 이백여명 동무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동무들의 요구조건은 다만 동무에게만 관한 것이 아니라 실로 우리 노동자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절대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테니 초지를 관철하도록 견결히 싸워주세요.<sup>47)</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소설에 나타나는 노동자들은 조직능력이 강하고 이웃 조직인 지식인들의 투쟁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하는 그러한 매우 긍정적인 형상이다. 김청년은 이 파업 사건을 전체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확장해 인식하였고 현호 등을 적극적으로 도와나섰다. 현호를 비롯한 편집부 직원들 역시 인쇄공장 노동자들의 아낌없는 협력으로 부분적 승리를 획득했다. 인쇄공장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와 협력으로 현호 등의 파업투쟁은 즉시 그 효과가 나타났고 이는 지식인의 무기력과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총파업이 계속된지 이틀되던 날 현호는 배준씨한테 불리웠다. 배준씨는 탄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이번에는 얼굴에 미소까지 띠우며, 「허! 대단히 강경한

47) 전홍준, 「새벽」, 『해방 3년의 小說文學』(김희민 편), 세계, 1987, 359쪽.

결……할 수 없네. 자네들의 요구조건을 듣도록 할테니 내일부터 모두들 출사토  
록 해주게..」<sup>48)</sup>

인쇄공장 노동자들이 편집부 직원들의 파업에 가세하자 배준씨는 즉시 딴 사람으로 변했고 현호 등 편집부 직원들의 요구 조건을 수락하고 양보함으로써 그들과 화해하고자 하였다. 즉 현호 등 편집부 직원들의 파업은 인쇄공장 노동자들이 이들의 파업에 가세하지 않았다면 배준씨의 양보와 같은 부분적인 승리를 획득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 파업 과정과 파업의 승리라는 측면에서 인쇄공장 노동자들의 파업 가세는 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노동자들의 역량이 매우 강대함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전체 구성을 보면 인쇄공장 노동자들에 관한 묘사는 소설의 뒷부분에만 잠깐 나타나며 소설에서 큰 비중으로 다루어진 편집부 지식인들의 무기력한 투쟁상황과 비교해보면 매우 간략하게 처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쇄공장 노동자들이 편집부 지식인들의 파업에 가세하자마자 주간 배준씨를 비롯한 파업의 적대세력이 막바로 굴복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힘이 과도하게 평가되었으며 이들의 파업 참여 과정과 투쟁 모습 역시 아주 작위적으로 처리되어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시의 사회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독자들은 『새벽』을 읽은 후 당시의 노동자들의 역량과 투쟁현실에 대해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실상, 당시 노동자들의 항쟁 현실은 참혹 그 자체였다. 아래 잠깐 당시 노동자들의 참혹한 투쟁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48년 4월, 박헌영은 『남조선정치정세』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과 참혹한 항쟁 현실을 다음과 같이 대중들에게 전한 바 있다.

(항쟁현실)처음의 투쟁은 1946년 가을에 일어난 10월인민항쟁입니다. (중략)  
300여인의 애국자가 반동경찰의 손에 피살되었고, 600여인의 부상자를 내었고,

48) 위의 책, 360쪽.

600여인이 행방불명되었으며, 15000여인이 피검되었고, 4000여인의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947년 3월 22일에 남조선노동계급은 식민지정책에 항의하여 또한 무리한 폭압에 반대하여 또한 1일간 총파업을 행하였습니다. 이 총파업에 있어서도 2000을 넘는 사상자와 19000여인이 피검되었습니다.<sup>49)</sup>

위의 내용은 「새벽」이 발표될 무렵인 1948년 4월 남조선노동당 당수인 박헌영이 대중들에게 노동자들의 참혹한 항쟁 현실을 설명한 내용인데 그는 당시 남조선의 인민항쟁이 대단히 큰 위기에 처해 있고 미군정으로부터 잔혹한 탄압을 당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미군정 실시 후 1년이 넘어가면서 조선반도에서 좌우익의 이념대립은 절정에 이르고, “1946년 10월 대구 인민항쟁은 해방기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한”<sup>50)</sup>다. 미군정 실시 1년이 넘어가면서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군정의 요직에 기용했고 동시에 불합리한 경제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사하였다. 이러한 처참한 현실 앞에 자주적인 민주국가 수립의 희망이 점점 사라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10월 인민항쟁이 발발했다. 10월 인민항쟁의 역사적인 의의는 크지만 그 대가 역시 너무 컸다. 좌파 세력의 주요 성원이 체포되었고 좌익활동은 위축되었으며 역으로 우파 세력은 항쟁을 계기로 조직을 결성하여 역량이 강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10월 인민항쟁 이후 인민항쟁의 형세는 더욱 위급해졌다. 노동자들의 항쟁방식도 소설에 나타난 평화로운 파업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파업이었다. 해방공간의 남부에서는 인민항쟁이나 파업이 종종 발발하였는데 상황이 낙관적이지 못하였다. 위에서 박헌영이 제시한 사건 외에 10월 인민항쟁 이전 ‘9월 총파업’도 발발했다.

1946년 9월 23일 부산지역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조직했고 대구역 철도노동자 1천여 명도 파업에 참여했다. 이러한 파업은 대규모적이었고 경북지

49) 김남식 편, 앞의 책, 430쪽.

50) 홍성식, 「해방기 인민항쟁과 창작실천의 문제」, 『한국문예비평연구』 4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321쪽.

사 해론(Gordon J. F. Heron)이 파업한 노동자의 대표를 만나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처음에는 이 파업이 합법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며칠 뒤 미군정이 무력으로 진압하기 시작하였다. 군중들은 무장경찰과 직접 싸우기도 하였고 경찰들이 군중들을 향해 발포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10월 인민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처럼 당시의 인민항쟁은 늘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었다. 만약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의 힘이 「새벽」 속의 인쇄공장 노동자들처럼 그렇게 강대하고 노동자들의 투쟁현실이 것처럼 낙관적이었다면 아마 인민항쟁이 발발할 리도 없었을 것이다.

사실 9월 총파업은 노동자들이 미군정의 식량과 노동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단행한 측면도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휴회된 후 좌파세력에 대한 미군정의 대대적인 탄압에 맞서기 위한”<sup>51)</sup> 남로당의 전술과 관련이 있었다. 10월 인민항쟁 이전에 민족세력이 규합되어 남로당에 대한 적극적인 대항이 이미 시작되었고 1946년 5월에 터진 정관사위폐사건 이후 미군정은 남로당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9월 총파업을 전후하여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조선공산당은 이에 가세하여 혼란을 가중시켰다”.<sup>52)</sup> 급기야 1946년 9월 7일 미군정이 박헌영에 대한 지명수배를 지시하였고 남로당은 악화된 현실상황으로 인해 지하로 숨어들 수밖에 없었다. 미군정의 탄압 아래 당수인 박헌영마저 월북해 버릴 정도로 남부의 좌익역량은 지리멸렬해졌으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좌익을 대표하는 조선문학가동맹은 당의 의지를 관철하고 인민항쟁을 작품화하는 것을 문인들의 최대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었다. 그러므로 전홍준의 「새벽」이 주제로 삼고 있는 지식인의 허위에 대한 비판은 이미 당시의 좌익과 조선문학가동맹의 문학과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새벽」이 왜 당시 좌익문단으로부터 혹평을 받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인쇄공장 노동자들이 파업에

51) 허종, 「1945~1946년 대구지역 좌파세력의 국가건설 운동과 “10월인민항쟁”」, 『대구사학』 75, 대구사학회, 2004, 179쪽.

52) 권영민, 『解放直後の 民族文學運動研究』, 서울대 출판부, 1986, 28쪽.

가세하고 총파업이 시작된지 이틀 후 현호 등 편집부 지식인들에게 그토록 횡포를 부리던 배준씨가 땀사람으로 변한 것처럼 현호 등에게 양보를 하고 파업이 승리를 거두는 것으로 되어있다. 김무산이 “현실은 왜곡되고 투쟁의 곤란성과 복잡성이 무시되고, 통털어 싸우는 노동계급의 현실이 모독”이라는 지적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히 적중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묘사는 노동자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왜곡하고 피비린내 나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모독한 것이다. 그리고 조선문학가동맹은 해방 후 새로운 창작방법론인 ‘진보적 리얼리즘’을 제기하였고 문화통일전선의 깃발 아래 모든 봉건적 잔재와 친일적 잔재를 청산하고 실천적 투쟁을 통해 진정한 문화건설을 호소했다. 그러나 『새벽』에서는 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에 대해 낙관 일변도로 너무 간단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이는 “혁명적 로맨티시즘을 내적 계기로 하는 진보적 리얼리즘”<sup>53)</sup>의 요구와도 맞지 않았다.

또한 소설이 발표된 당시에 작가가 주로 문제시했던 것은 허위적이고 무기력한 지식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긴 편폭으로 배준씨의 허위와 비열 및 지식인 동료들의 무기력함과 나약함을 묘사했다. 인쇄공장 노동자들의 사심 없는 도움을 받으면서 현호는 지식인과 노동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식의 과잉으로써 실천력이 하나도 없이 인간성마저 마비되어 가면서도 소위 지식인이라고 해서 어떤 긍지를 갖고 노동자들을 멸시하여 갖은 수단으로 그들을 이용하려는 지식계급들이 벌써 한세기나 뒤떨어진 세계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면 비록 옷은 때가 피뢰죄한 것을 입었을망정 바른일이라면 그것이 비록 남의 일이라도 이렇게 자신의 이익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척척 나서 주는 노동자들은 어느 말대로 모든 봉건적 인습에서 이탈한 앞으로 올 새로운 세계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닐까.<sup>54)</sup>

53) 김동석, 『해방기 진보적 리얼리즘론에 대한 일고 - 1930년대 후반 리얼리즘론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6, 한국근대문학회, 2005, 328쪽.

54) 전홍준, 앞의 책, 361쪽.

현호는 소위 명사라는 배준씨와 같은 지식인들에 대해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가짜민주주의자라고 비판했다. 현호는 친구인 진석의 입을 통해 “입으로는 민주주의적인 구호를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조선의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좀먹고 있는 배준씨와 같은 도배들”<sup>55)</sup>이라고 그들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현호에게 그들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자본주의와 봉건적인 인습을 그대로 지닌 이기적인 인간들일 뿐이었다. 이에 반해 그저 묵묵히 실천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노선을 걷고 있는 노동자들이야말로 자기가 추종해야 할 대상이라고 현호는 생각하였다. 그들이야말로 실천을 통해 봉건적인 인습에서 벗어나 희망차고 힘이 있는 민주국가를 건설해나가는 진정한 주인이었다. 이처럼 「새벽」이 뚜렷하게 내세우고 있는 지식인의 무기력 및 허위에 대한 비판과 노동자들에 대한 긍정은 물론 당시 사회현실의 한 측면이기도 했고 좌익작가가 포착한 현실 개혁의 한 요소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주제는 48년 당시 이미 미군정에 대한 전면적인 항쟁과 무력투쟁에 진입한 남로당의 투쟁 목표 및 전략전술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남로당이 발간한『남조선 정치정세』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미국인의 이러한 태도는 조선을 식민지화하며 동방침략의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계획과 결부되었던 것입니다.(중략)

……그러므로 우리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며 다시 외국통치의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는 모든 애국동포들은 모두 일어나서 선거를 보이코트하여야 됩니다.  
(중략)

……조국의 이익은 금일 모든 민주애국세력과 전인민이 친목하게 단결하여 일치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통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파탄시킴으로써 조국을 절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하여 남북이 통일해야 합니다.<sup>56)</sup>

위의 내용이 보여주듯 48년 당시 남로당의 주요한 투쟁대상은 무기력하고

55) 위의 책, 356쪽.

56) 김남식 편, 앞의 책, 420~432쪽.

허위적인 지식인이 아니라 소위 남로당이 내세운 인민민주주의 국가건설을 방해하고 그들을 불법정당으로 낙인 찍고 탄압한 미군정이었다. 2년전인 46년에 발발한 인민항쟁도 미군정의 통치에 대해 강렬한 불만을 품고있던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미군정을 반대해 일으켰던 광범위한 무력항쟁이었다. 남조선노동당에게 미군정은 남북통일을 파괴한 주된 요소이고 그들을 불법정당으로 내몬 장본인이기 때문에 항쟁과 투쟁의 주된 대상이었다. 그런데 1948년 4월에 발표된 이 작품에는 미군정에 대한 반항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작가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시대의 주된 정신을 민감하게 포착하지 못한 뚜렷한 한계를 보여준다. 소설이 아직 배준씨와 같은 위선적인 지식인들을 민주주의국가 건설의 주된 장애물로 인식한 것은 본말이 조금 전도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전홍준은 신진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격동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해방 초기에 비하면, 1948년의 남로당의 처지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정판사위폐사건 이후 미군정은 남로당을 불법단체로 몰아 공개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고 10월 인민항쟁 이후 좌익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런 배경 아래 투쟁의 형세는 많이 위급해졌다. 당 내부의 통일에 비하여 미군정의 탄압 및 진행 중인 단독정부 선거 등 외부의 위협이 훨씬 더 컸던 것이다. 그러나 1948년에 발표된 『새벽』은 지식인의 비판과 자기비판을 주제로 했던 해방 직후 즉 2년전과는 크게 달라진 시대적 현실을 제대로 읽어 내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함으로 하여 좌익문단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이다. 실은, 1948년 8월 전홍준은 『새벽』의 속편이라고 할 만한 소설 『준동』<sup>57)</sup>을 발표하였다. 『준동』의 주인공도 현호이고 인물 설정도 『새벽』과 아주 비슷하다. 이 소설에서 작가 전홍준은 친일분자인 지식인과 위선적인 지식인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허위적이고 위선적인 지식인에 대한 비판은 해방공간의 신진작가인 전홍준의 주요 관심사였던 것 같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관심사는 정작 남로당 당시의 요구와는 상당히 어긋났던 것이다. 『새벽』에는 마땅히

57) 『준동』, 『개벽』 통권 79호, 10권 4호, 1948.8.

있어야 할 노동자들의 참혹한 반항과 피어린 무력항쟁의 현실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했고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묘사되었으며 이러한 항쟁을 문학의 최우선, 최대의 과제로 삼고자 했던 남조선노동당의 정치이념이 작동되지 못했던 것이다.

## 5. 맺음말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된 민족국가의 건설로 나아가던 해방공간은 정치의 시대였다. 좌우의 양대 세력은 치열한 투쟁을 벌였고 문단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각자의 문학 세력을 결성하였다. 정치의 영향 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문인들의 창작에 대한 비평이나 평가 역시 정치이념과 갈라놓을 수 없다. 해방공간에서 좌익문단에 대한 남조선노동당의 장악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문학가동맹의 이합집산 과정을 주도하였던 남로당은 좌익문인을 통해 좌담회·창작합평회·간담회 등 활동을 벌였으며 문단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조선문학가동맹의 기관지인 『문학』을 중심으로 남로당은 직접적으로 문인을 인도하여 당의 의지에 따라 소설창작을 진행하게 하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문학작품의 운명은 정치에 의해 막바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글은 바로 비슷한 주인공과 주제를 다루고 있는 『도정』과 『새벽』이 당시 좌익문단으로부터 사뭇 다른 평가를 받은 이유에 주목하여 해방공간의 정치이념과 문학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하련의 『도정』은 해방공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소설로 큰 성공을 얻었다. 작가 지하련은 해방 초기의 큰 시대 주제인 지식인의 자기비판의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항자가 발본적인 자기비판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여 새 모습으로 민주국가 건설에 투신하게 되는 가능성을 문학적인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소설에서 석재는 당을 위해 기철에 대한 불만이 아무리 커도 최종적으로 재입당하였고 또한 기철은 자기에 대한

석재의 불만과 적의를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석재에게 입당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설정은 가짜공산주의자가 당에 혼입하는 것에 대해 경계성을 갖춰야 함과 동시에 당의 이익을 위해 내부의 단결을 주장하고 분과활동을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에 대한 당의 건설 요구에 고도로 부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도정」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해방공간에서 남로당이 주장한 자기비판과 당의 건설의 정치적 요구에 부합됨으로 인한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슷한 주인공과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전홍준의 「새벽」은 발표된 후 좌익문단으로부터 부정 일변도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새벽」이 노동자들의 참혹한 반항 현실과 남로당 당시의 투쟁 요구에 어긋났고 남조선노동당의 정치이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0월 인민항쟁 이후 인민항쟁의 형세가 더욱 위급해졌고 노동자들의 항쟁방식은 소설에 나타난 평화로운 파업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파업이었다. 이러한 사회현실과 함께 고려한다면 이 소설은 현실을 왜곡하고 투쟁의 곤란성과 복잡성을 무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남조선노동당에게 있어 미군정은 남북통일을 파괴하고 그들을 불법정당으로 몰아간 적대세력으로 반드시 미군정에 끝까지 대항해야 하였으나 1948년 4월에 발표된 이 작품에는 미군정에 대한 적개심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작가 전홍준이 시대적 흐름에 둔감하고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도정」과 「새벽」은 정치의 시대 즉 해방공간이라는 특수시기에 문학작품의 운명이 정치에 의해 좌우된 대표적인 실례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이 문학과 정치의 관련에 착안하여 해방공간 소설에 관한 연구 및 문학과 정치의 관계에 새로운 발상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동아일보』, 1946년 4월 3일.  
 『문장』 속간호, 3권 3호, 1948.10.  
 『문학』 3호, 1947.4.  
 『문학예술』 창간호, 1948.4.  
 『신천지』 4권 6호, 1949.7.

### 2. 단행본

- 권영민, 『解放直後の 民族文學運動研究』, 서울대 출판부, 1986.  
 \_\_\_\_\_,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01.  
 김남식 편, 『남로당연구자료집』,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2010.  
 김영민, 『한국 현대문학비평사』, 소명출판, 2002.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 출판부, 1989.  
 김희민 편, 『해방 3년의 小說文學』, 세계, 1987.

### 3. 논문

- 권성우, 『해방직후 진보적 지식인 소설의 두 가지 양상』, 『우리문학연구』 40, 우리문학회, 2013.  
 김동석, 『해방기 진보적 리얼리즘론에 대한 일고』, 『한국근대문학연구』 6, 한국근대문학회, 2005.  
 김무용, 『해방 후 조선공산당의 통일전선과 좌우합작운동』, 『한국사학보』 11, 고려사학회, 2001.  
 김성수, 『6·25전쟁 전후시기 북한 문예지의 문화정치학』, 『민족문학사연구』 62, 민족문학사회학회, 2016.  
 손미란, 『‘10월 인민항쟁(1946.10)’을 통해 본 ‘시간의 정치학’』,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신정은, 『잡지 『신천지』의 해방기 문학적 특성 연구』, 『국제한인문학연구』 22, 국제한인문학회, 2018.  
 오태호, 『“응향” 결정서’를 둘러싼 해방기 문단의 인식론적 차이 연구』, 『어문론집』 제48집, 중앙어문학회, 2011, 37~64쪽.  
 \_\_\_\_\_, 『해방기(1945-48) 북한 문예지에 게재된 대표 단편소설 연구』, 『현대소설연구』 80, 한국현대소설연구학회, 2020.  
 이병순, 『해방기 자기비판소설 연구』, 『국어국문학』 113, 국어국문학회, 1995.  
 이봉범, 『잡지 『신천지』의 매체 전략과 문학』, 『한국문학연구』 3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0.  
 장노현, 『전흥준 소설의 현실인식 연구』, 『한국언어문화』 22,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전흥남, 『해방기 전흥준의 소설 일고』, 『현대문학이론연구』 7, 현대문학이론학회, 1997.  
 허 윤, 『속간호 『문장』과 정지용』, 『구보학보』 21, 구보학회, 2019.  
 허 중, 『1945~1946년 대구지역 좌파세력의 국가건설 운동과 “10월인민항쟁”』, 『대구사학』 75, 대구사학회, 2004.  
 홍성식, 『해방기 인민항쟁과 창작실천의 문제』, 『한국문예비평연구』 4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 韩国解放空间的文学与政治

— 以《道程》和《拂晓》为中心 —

陈燕\* · 李海英\*\*

本文旨在以池河连的《道程》与全洪俊的《拂晓》为中心、探究韩国解放期政治与文学的关联性。这两部作品都刊登在左翼领导的朝鲜文学家同盟机关杂志《文学》上、在主人公设置和主题方面存在相似性、但《道程》在当时广受好评、而《拂晓》在当时不仅没有受到太多关注、仅有的一些文学评论也以负面为主。

政治的时代中、作品和作家的命运往往也被政治支配。结合当时南朝鲜劳动党的相关资料、《道程》的成功可以说是必然、因为其情节设定高度符合南劳党的政治主张；而全洪俊的《拂晓》与当时南劳党的政治理念不够贴合、所以在当时主要受到左翼文坛的批判。

政治的时代中、是否符合要求、决定了作品和作家命运的成败。从这种角度出发、《道程》和《拂晓》可被视为韩国解放空间这一特殊时期被政治左右命运的实例。

**关键词：**池河连、全洪俊、《道程》、《拂晓》、南朝鲜劳动党、韩国解放期文学、政治与文学

논문투고일: 2022년 3월 18일 || 심사완료일: 2022년 5월 17일 || 게재확정일: 2022년 5월 21일

---

\* Master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Ocean University of China

\*\* Professor of Korean Department, Ocean University of China